

토종종자 발굴 보존을 위한 현장연구 및 토종종자 보급소 개발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김은진* · 심문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적 요

- 전 세계적으로 토종종자를 심는 농민들의 농부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10개국의 토종종자 보존 사례를 연구하여 한국에서 토종종자를 심는 농민들이 토종종자를 보존할 수 있는 법, 제도, 보존방법 등을 연구하였고, 토종종자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 토종종자를 현장보존하며 다양한 토종종자의 증식과 보급을 진행하였고, 토종종자 실태 조사를 통해 사라져 가는 토종종자를 수집하고, 전국적으로 보급, 확산하는 연구를 진행함

I. 연구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유전자원이 미국 등의 선진국으로 넘어간 상태이고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종자들 역시 많이 사라지고 없는 상태이다. 종자는 GMO를 연구하기 위한 유전자원으로 확보만 할 뿐 이를 보급하거나 전통적인 육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많이 부족하다.

* 연구자는 토종종자 보급운동을 펼치고 있는 농민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한 토종종자 발굴 및 보존, 보급을 위한 연구에서 해외 10개국의 토종종자 보존 사례 연구와 국내 토종종자 보존을 위한 법, 제도, 보존방법 실태 조사를 통해 토종종자 보존의 중요성과 토종종자 보급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보급 종 또는 종묘회사에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종자는 점점 더 단일화하고 종의 다양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각국의 고유 자원이 친환경적이고 지역 내에서 적응력이 뛰어난 종자로서 경쟁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각국에서의 종자자원 보존에 대한 현황과 GMO에 대한 실태 등의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민들의 농부권을 보호하고 UPOV(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응하여 토종종자 보존의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의 농민들이 토종종자를 지키기 위한 활동과 토종씨앗 보존 보급에 대한 노력, 모델 발굴이 중요하며 토종종자를 지켜낼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정보교류 등을 통한 자원 확보가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사라져 가는 토종씨앗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종 다양성을 보존하며 농민들이 토종종자를 보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종자주권과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Ⅱ.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 가. 토종종자 민간보유 실태조사 및 분석, 토종 채종포 운영
- 나. 토종종자를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모색 및 보완과제
- 다. 해외 토종종자 보존 및 농민 토종종자 보급소 사례조사 및 연구, 기후변화에 적응할 현장보존의 필요성 연구

2. 연구내용

- 가.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종종자에 대한 실태조사의 채종포를 통한 증식으로 토종종자의 특성 파악과 토종종자를 확보한다.
- 나.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토종종자를 조사하고 수집한다.
- 다. 농민들이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해외 토종종자 보급소의 사례를 연구한다.

Ⅲ. 연구결과 및 현장 적용사례

1. 토종종자의 정의

토종의 정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토종: 그 땅에서 나는 종자. 토산종(土産種)’이라고 되어 있고, 1997년에 발족된 한국토종연구회(회장 안완식박사)에서는 토종을 “한반도의 자연생태계에서 대대로 살아 왔거나 농업 생태계에서 농민에 의하여 대대로 사양, 재배 또는 이용되고 선발되어 내려와 한국의 기후 풍토에 잘 적응된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쉽게 말해 토종은 우리의 풍토에 적응해서 대대로 살아온 우리 고유의 자생종, 혹은 재래종의 식물, 동물, 미생물을 말하는 것이다.

2. 토종종자 지키기 운동

(1) 종자현황

유전자라는 단어가 언론 등을 통해 쉽게 다루어지면서 생명에 대한 신비는 사라졌다. 인터넷 상에서는 생명공학과 의료라는 다양한 영역에서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더한 것은 유전자조작식품 분야이다. 안전성에 대한 선택의 여지는 없어졌다. 종자라는 생명이 상업적인 정보로 취급되고 초국적기업 등은 법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전반 생명공학 관련 기업과 곡물 메이저 등의 일부 초국적기업에 의한 유전자 특허 쟁탈전은 종자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열되었다. ‘종자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은 ‘유전자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로 바뀌었다. 과학적인 발견·발명부터 그 응용까지 가속화하는 가운데 안전성과 윤리에 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상업적인 재배로 연결되었다.

2002년에 ‘기아와의 전쟁’을 주제로 FAO는 로마에서 제2회 세계 식량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기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유전자조작 등의 생명공학을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당시의 정상회의는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생명공학에 대한 승인의 배경에는 미국의 강력한 압력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국제식물유전자원연구기관(IPGRI)의 유명한 작물유전학자인 Hawtin장관에 따르면 세계 종자은행이 자금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며 작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기아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억 6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제 호주의 The Seed Savers' Network를 이끄는 마이클 팬튼과 주드 팬튼(Michel and Jude Fanton) 부부는 “경제적인 상황때문에 유전자은행에서는 유전적 상태를 완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종자표본을 재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은행은 발아능력을 시험하고 재배하여 종자를 늘려 보관하는 중요한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결국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유전자은행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세계 약 1300여 개의 종자은행에는 약 600만 품종의 종자가 있다. FAO에 따르면 농업작물의 생물다양성은 생산성을 높이는 작물에 의해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식물·농업용으로 약 1만 종의 식물품종이 쓰여져 왔지만 오늘날에는 작물의 약 90%가 120종 남짓의 품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조작에 의한 GMO종자로 인하여 재래종의 종자 오염문제가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GMO에 의한 오염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농민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염된 농가가 생명공학 종자회사인 초국적기업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 기업으로부터 종자를 구입한 농가는 그 종자를 자가채종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터미네이터’라고 불리는 자살종자에 의해 자연계에서는 당연한 질서였던 자가채종이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파괴되고 있다. 그리고 이 터미네이터 종자를 제3세계에 수출하거나 지원하여 현지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다.

유럽이나 쿠바 등 유기농업을 중시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종자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세계에서는 현재 개별 농가부터 대규모 전문기관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종자를 자가채종하여 지키고 교환하는 ‘지역종자네트워크(Local Seed Network, 이하 LSNs)’가 증가하고 있다.

(2) EU

2008년 EU는 ‘토종종자 보존을 위한 지침(Commission Directive 2008/62/EC, 이하

토종종자지침)¹⁾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지역공동체에서 스스로 자가채종하면서 이어온 종자를 현지내(in-situ) 보존으로 인정하고 이를 식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²⁾

즉, 지역공동체 내에서 적응된 종자가 해당 지역 및 해당 지역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재배되고 판매되는 것을 보장한다.³⁾ 또한 해당 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규정 등에서 정한 기준을 완화하여 품종보호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다. 즉, 해당 품종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시험결과가 필요하지 않다.⁴⁾

이 지침은 특정지역에서 수 세대에 걸쳐 이어 내려온 종자를 생물다양성과 식물유전자원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현지내 보존을 위해 재배와 유통, 판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규정이다.

2009년 EU는 토종종자 지침에 이어 상업적 가치는 없지만 생물다양성과 식물유전자원을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채소품종에 관한 채소 토종보존을 위한 지침(Commission Directive 2009/145/EC)’⁵⁾을 제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토종종자 지침과 동일하다.

1) Commission Directive 2008/62/EC of 20 June 2008 providing for certain derogations for acceptance of agricultural landraces and varieties which are naturally adapted to the local and regional conditions and threatened by genetic erosion and for marketing of seed and seed potatoes of those landraces and varieties, OJ L162, pp.13-19. 이 규정을 ‘토종종자’ 지침이라고 이름지은 것은 이 지침 제2조의 ‘정의’에 포함된 내용과 한국토종연구회의 ‘토종’의 정의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한국토종연구회에서는 ‘토종은 한반도의 자연생태계에서 대대로 살아왔거나 농업생태계에서 농민에 의하여 대대로 사양, 재배 또는 이용되고 선발되어 내려와 한국의 기후풍토에 잘 적응된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http://genebank.rda.go.kr/kans/introduction/introduction3.asp>>(최종 방문일 2010. 9.30).)

2) 토종종자지침 전문 (2).

3) 토종종자지침 제13조 제2항.

4) 토종종자지침 제5조.

5) Commission Directive 2009/145/EC of 26 November 2009 providing for certain derogations, for acceptance of vegetable landraces and varieties which have been traditionally grown in particular localities and regions and are threatened by genetic erosion and of vegetable varieties with no intrinsic value for commercial crop production but developed for growing under particular conditions and for marketing of seed of those landraces and varieties, OJ L312, pp.44-54(2009).

(3) 비아 캠페시나

1996년 식량주권운동을 선언한 이래 ‘비아 캠페시나’ (La Via Campesina)는 농민들에게 농업생산을 위한 자원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해왔고 종자가 그 핵심임을 강조해왔다. 이후 ‘비아 캠페시나’의 모든 선언 및 활동에서 GMO 및 GM종자 생산 기업, GM종자를 재배하는 국가 및 단체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해왔다. 이는 2008년에 개최된 ‘비아 캠페시나’ 제5차 총회에서 채택된 ‘마푸토 선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09년 6월 ‘비아 캠페시나’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ITPGRFA, 이하 ‘식물유전자원조약’) 집행기구의 정기회의에 ‘식물유전자원조약’ 제9조에서 보장한 농부권의 준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식물유전자원조약’ 당사국은 농부권을 준수하고 생물 해적질, 유전자특허로 인한 종자 오염, 사회/농업/문화체계 및 이와 관련한 전통지식에 반하는 정책 등으로부터 농부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종자의 현지 내 보존을 위하여 농민들에게 종자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현지 내 보존을 실현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제안서에서 ‘비아 캠페시나’는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이를 향유하는 기업이 농부권을 해칠 뿐만 아니라 농업·식량의 지속가능성을 방해한다고 지적하였다.

2011년 3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식물유전자원조약’ 집행기구의 정기회의에 앞서 ‘발리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농부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지 않는 ‘식물유전자원조약’ 당사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는 “중앙집권화된 유전자은행은 농민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전자은행들은 생물해적질을 저지르는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종자박물관일 뿐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곳이다. 이에 더해, 이러한 은행 속에서 우리의 종자는 유전자 오염과 지적재산권에 의해 위험에 처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고 식물에 대한 특허, 은행이 보유한 유전자 혹은 다른 식물 부분의 유전자, 농업보존 씨앗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는 식물다양성 보호와 다른 지적재산권, GMO가 존재하는 한 유전자은행 등을 통한 종자수집을 거부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식물유전자원조약’에서 언급하고 지역 사회 및 토착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지적재산권, GMO 등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인도

인도에서는 1990년대 들어 지역마다 농민들의 손에 의해 종자은행을 건설하고 이를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결성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의 종자은행에서는 지역에서 수집된

각종 토종종자들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농민들과 지역공동체는 이 종자은행을 통해 토종종자들을 보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각 지역 종자은행들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조직되어 있어서 정보 및 종자의 교환이 가능하다.

나브다냐는 인도어로 9개의 씨앗이라는 뜻으로, 다양성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1996년부터 겨울 음식축제인 “가르마 가람(Garma Garam)”을 열고, 비타민 A와 각종 무기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다양한 잡곡류와 채소류로 만든 음식을 널리 알리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GMO 반대 운동가 반다나시바가 이끄는 나브다냐는 생물다양성과 소농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이다. 1987년에 시작된 이 단체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GMO의 위험에 대항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의 토종종자를 발굴하고 보존하며 이를 무상으로 나눠주어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다. 2000년부터 GMO 프리 생물민주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인도 16개의 주에 약 54개의 종자은행을 가지고 있으며 이 종자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종종자만 5,000여 종 이상이다. 종자를 나눠줄 때는 그 종자에 맞는 유기농법도 함께 알려주어 종자의 보급 뿐만 아니라 유기농업의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2010년 10월, 간디의 생일을 기념하여 개최된 ‘지구촌축제’에서 나브다냐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 종의 토종종자를 전시하였다. 이 종자는 쌀, 인도 전통콩, 유지종자 등 20년 이상 보존된 종자들이다. 또한 이 축제를 계기로 학교와 지역사회 등지에서 토종텃밭 운동을 전개하여 향후 3년 내에 1,000개의 텃밭을 만들어 생물다양성과 식량주권을 이룰 것을 제안하였다.

(5) 유럽종자네트워크

2005년 11월 프랑스 포이티어에서 ‘소농의 종자네트워크’와 ‘자가채종 종자의 보호를 위한 연합’이라는 단체에 의해 처음 조직된 ‘다양성을 퍼트리자!(Let’s Liberate Diversity!)’라는 포럼이 처음 개최되었다. 이 포럼은 종자의 생산, 교환, 보유에 관한 농부권 보장을 목표로 하였으며 자연스럽게 ‘GMO 프리존 운동’에 합류하였다. 2006년 10월 제2차 포럼이 스페인에서, 2007년 5월 제3차 포럼이 독일에서, 2008년 10월 제4차 포럼이 이탈리아에서 개최되었다.

2010년 3월 오스트리아 그라즈에서 개최된 제5차 포럼은 ‘미래를 심자-다양성을 수확

하자(Sowing the Future - Harvesting Diversity)' 라는 표제 하에 진행되었으며 '그라즈 선언-다양성을 위한 자유'가 채택되었다. 이 선언에서는 종자에 대한 접근권을 인권으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요구하였다.

첫째, 우리 스스로가 수확한 종자를 보유하고, 재파종하고, 나누고, 팔 권리를 인정할 것. 둘째, 재파종할 수 있는 품종의 육종자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지역에서의 다양성을 증진할 것. 셋째, 농업에서의 유전자조작 기술을 금지할 것. 넷째, 식물과 동물 및 그에서 유래한 유전자의 특허와 육종방법에 대한 특허를 예외 없이 금지할 것. 다섯째, 에너지집약적인 산업화한 생산과 단작을 지원하는 대신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생태적인 생산을 증진하는 새로운 농업정책을 수립할 것 등이다.

2011년 2월 헝가리 세계드에서 개최된 제6차 포럼에서 채택된 '세계드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유럽의 농민들은 수확한 종자 가운데 지역환경과 기후변화에 적합한 종자를 선발하여 재파종해왔다. 지역에서 선발된 종자를 상호교환하면서 식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하고 관리해왔다. 따라서 우리의 종자를 재파종할 때마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농부권을 제한하는 EU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식물유전자원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농부권의 보장을 요구한다. 또한 GMO 작물이 환경에 노출되어 퍼져나가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GMO와 Non-GMO의 공존은 불가능하다. 생명체에 대한 어떠한 특허도 금지되어야 하며 육종자의 권리가 농부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식물유전자원의 원산지에 관한 모든 정보는 공개해야 하며 EU 각국은 '식물유전자원조약' 집행기구의 정기회의에서 이를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한다.”

(6) 일본

일본의 식량자급률이 40% 이하로 낮아진 것은 최근 알려졌지만 종자의 자급률이 낮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종묘상에서 판매하는 종자는 일본이름의 종자라 할지라도 생산지를 잘 살펴보면 수입종자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일본의 종자자급률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데는 다음 세 가지의 주요 원인이 있다. 첫째, 종묘회사의 종자의 생산량은 기업이 전략적으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둘째, 일본 재무성의 무역통계에서는 「기타 파종용 종자, 과실, 포자」로 함께 분류하기 때문에 자급률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 셋째, 개개의 농가에서 자가채취한 종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농림수산성의 자료에 의하면 벼, 맥류, 두류의 국내 사용종자의 자급률은 100%, 채소는 14%이다. 단, 대두생산의 자급률은 5% 이내이기 때문에 대두의 국내 수요에 대한 종자의 자급률 역시 5% 이내가 된다. 종자의 자급률은 국내 생산작물에 사용한 종자에 대한 국내산 종자의 비율이므로 식량자급률이 낮은 일본은 종자자급률도 낮다고 봐야 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채소생산 출하통계에서는 채소 가운데 무, 순무, 당근, 우엉, 배추, 양배추, 시금치, 파, 양파, 가지, 토마토, 오이, 완두, 누에콩, 강낭콩, 김치류 등 16품목에 대하여 종묘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채종량이 1998년 당시 707톤이라고 한다. 또한 2002년 수입량은 '파종용 종자, 과실, 포자'가 총 85,000톤이고 그 가운데 식용작물이 약 12,000톤이다.

일반적인 종자조차도 선진국에 비하여 자급률이 낮고, 게다가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재래 품종이 유기농종자가 되므로 유기농종자 역시 유기농업 선진국인 미국에 비해서도 부족하다. 세계적인 유기인증제도가 엄격하게 유기농종자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유기농식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에서도 종자부터 가공과정에 이르기까지 순수한 유기농 상품을 원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유기농종자의 부족은 많은 유기농가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일본 내에서 식량자급률이 낮은 것 못지않게 종자자급의 문제도 심각하다. 따라서 식량과 종자 양자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두 한줌운동(大豆ひとにぎり運動)', '슬로푸드운동' 등과 결합하여 지역 고유의 작물을 이용한 요리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에서 대대로 이어지던 종자가 농가의 경제적인 곤란과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종자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역의 종자를 발굴하고 자가채종하는 운동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또한 재래종을 취급하는 소규모의 종묘농가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자연농법이나 유기농법에 의한 농가가 아니더라도 종자를 채취하는 일반 시민 육종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슬로푸드운동으로 자신의 채소를 직접 재배하는 것과 농업지원을 위한 농업체험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도시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학교교육에서도 도시농업을 다루고 있다. 채종을 위한 재배는 시장에서는 구할 수 없는 채소를 맛볼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종자를 기쁨으로써 종자를 얻는 이 단순한 행위는 곧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관리하는 권리를 얻는 것이다. 종자는 생물학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를 지니는 셈이다. 이러한 가치 아래 일본의 종자 지키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종자 지키기 운동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LSNs이며 두 번째는 유기농업연구회에 의한 종자보급운동이다.

LSNs는 자가채종한 종자를 교환하는 것을 주된 운동으로 진행하는데 호주에서 시작된 The Seed Savers' Network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아키타현 종묘교환회(秋田縣種苗交換會)와 같이 130년의 역사를 지닌 종자교환 전통에 대하여 그 역사적인 의의를 중시하며 종자교환 뿐만 아니라 종자관련 각종 정보 및 요리 정보까지 교환하고 있다.

LSNs이 중시하는 것은 다음의 7가지이다. 첫째, 세대를 이어온 중요한 유전자원인 집안의 종자를 스스로 재배자가 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간다. 둘째, 근교지역에 있는 종자를 발견하여 재배법, 문화 등을 계승한다. 특히 과거에는 당연한 풍습이었던 자가채종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종자도 함께 없어져 가고 있다. 이런 풍습은 이제 고령농민에게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종자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배법까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종자교환을 통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넷째, 작물의 특징을 이용한 가공기술/향토요리를 전수하는 가능해진다. 다섯째, 작물의 병,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에 의한 멸종을 막을 수 있다. 여섯째, 근교약세에서 약한 종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종자 지키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일본 유기농업연구회의 종묘부(種苗部)는 유기농업에 적합한 종자를 발굴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 종묘교환회를 개최하고 있다.

유기농업연구회에서는 자가채종의 종묘를 교환하기 위하여 수도부현(都道府縣) 단위의 교환회와 지방부 현 단위의 교환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관동지구 교환회는 1982년 시작되어 2003년에는 21회 교환회를 진행하였을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전국종묘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3년에 개최된 제5회 전국 종묘연수회는 종묘교환의 역사가 오래된 아키타현에서 개최하였다. 종묘연수회에서는 종자교환 뿐만 아니라 자가채종 방법 등의 기술 실기지도가 함께 이루어진다.

셋째, 유기농업에 적합한 종자를 선정하여 안내하고 있다.

전국의 유기농업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정한 100품종에 대한 설명서를 출판하여 판매함으로써 유기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넷째, 우량 자가채종 종자를 보존하고 있다.

자가채종한 종자 가운데 우량종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냉동보존하고 있다. 이 보존 종자의 일부를 종묘네트워크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또한 종묘네트워크에서는 전국에서 자가채종한 품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약 170개 품종을 엄선하여 배포하였다.

종묘교환회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통하여 자가채종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운동을 진행하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다.

첫째, 종묘부터 자가재배하여 종묘를 자가채취하고 번식시켜 얻어진 종자를 교환하는 것이다. 교환할 종자가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지만 종묘판매업자나 그 종업원은 참가할 수 없다.

둘째, 참가자는 가족단위로 참가비 500엔을 내야 한다.

셋째, 교환하는 종자는 자가채종한 종자에 한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등록한 종자한 것으로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종자는 교환할 수 없다.

넷째, 교환하는 종자는 적정량으로 소분하여 주소, 이름, 품목명, 품종명, 특성, 재배 및 채종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환하는 종자를 전시한 경우에는 회장에 전시된 종자 가운데 희망하는 종자를 가져갈 수 있다.

여섯째, 종자교환이 끝난 후 회장에 남은 종자가 있을 경우에는 교환할 종자를 가져오지 않은 사람도 종자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때에는 1인당 1000엔 이상의 모금을 해야 한다.

일곱째, 가져가는 종자는 교환할 종자를 가져왔건 안가져왔건 품목, 품종마다 하나씩이지만 같은 품목, 품종이지만 제공자가 다를 경우에는 제공자 당 한 종자씩 가져갈 수 있다.

여덟째, 가져가는 종자는 자가재배하여 자가채종, 번식시켜야 한다. 만약 그 종자가 등록된 것인 경우에는 제공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환하는 종자에 관한 품질 및 그 외의 보증은 하지 않는다.

(7) 태국

태국은 자립형, 지역순환형 농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잘 알려진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실제 그 정책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1997년의 경제적 위기 이후 국가 차원에서 국왕을 중심으로 내수와 자립형 경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태국 내의 대기업인 Charoen Porkland Group(이하 CP 그룹)의 경제적 이익이 우선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CP 그룹은 주 산업이 식품산업이

지만 종자에서부터 통신사업, 사료, 세븐일레븐 사업까지 그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재벌 기업이다. 이 기업이 태국 국왕의 자립형 경제 정책을 통해 새롭게 꾀하는 사업이 바로 친환경상품을 취급하는 대형 슈퍼마켓사업이다. 이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태국 농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농작물 판매의 장소 및 기회를 제공하여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표면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농업정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태국이 자립 경제를 주창하면서도 여전히 한편으로 수출지향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WTO에 따르면 태국은 세계 5위의 식량수출국이다. 국왕 이하 수상 및 정부 관료들은 자립경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식량생산을 지원하고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농기업의 압력에 의해 수출을 위한 상업적 작물 재배를 여전히 지향하고 있다. 이런 수출지향적인 상업작물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으로는 자립경제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훼손할 것이라는 사실은 다음 몇 가지의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태국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간 농산물 수입에 대한 관세를 24%까지 낮춰야 했다. 이는 결국 태국 농민들이 세계 곡물가격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1996년부터 2002년에 이르기까지 태국의 주요 수출작물인 태국쌀의 가격은 42%까지 하락했다. 이는 호주, 미국, EU, 중국 등의 값싼 농산물로 인한 결과이다. 또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식량수입은 배로 늘었다.

이러한 상황은 수출작물이 아닌 내수용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소농들은 지역 시장에서 농작물을 생산비 이하로 판매해야만 했다. 이는 결국 농민들의 부채를 늘리고 그로 인하여 이농하는 현상까지 낳았다. 남아있는 농민들도 고투입농업을 통하여 점점 더 많은 부채를 안게 되었다. 태국정부의 자립경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농민들에게 땅을 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비판이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농업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점점 악화하고 있는 와중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무농약 농산물의 재배로 이어졌다. 이 무농약 농산물 재배를 주도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CP 그룹이었다. 그동안 식품산업 및 농약산업을 주도해 왔던 CP 그룹은 1990년대 말 수출시장의 유지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 정책은 정부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태국 제8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으로 1999년 유기농인증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당시 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농민들이 아니라 대규모 농산물 수출업자들이었다.

더욱이 이 정책은 2001년 수상이 바뀌면서 폐기되었다. 특히 2004년 조류독감이 유행한 이후 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는데 바로 CP 그룹이 조류독감을 근절하기 위해서 공장식 축산을 주장하였고 이를 정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태국의 유기농인증은 세계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여전히 중요하게 존속하였다. 그러나 이 유기농 인증방식에 대해서 수출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농민들이 환경친화적이라는 이유로 찬성하는 반면 이러한 인증방식은 전혀 유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이 유기농정책이 CP 그룹과 같은 기업들이 농민들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유기농을 위하여 농민들은 이 CP 그룹으로부터 종자를 사고 용자를 받고 다시 농산물을 그들에게 싼값으로 파는 악순환을 계속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둘째, 수출작물 중심의 유기농 정책이 농업의 대안, 즉, 자립경제의 기반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소수민족 공동체들의 주 거주지인 고지대도 점차 태국정부 정책의 위협을 받고 있다. 20년 전부터 동북부, 남부, 그리고 북부의 수많은 농민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 전통적 지속가능한 농업을 포기하고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 커피 등 수출위주의 현금작물 재배로 농작물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그간 남부에서 생산되어 왔던 상업적 고무나무가 정부 정책에 의해 동북부, 북부 농가에도 장려되고 있다.

새로운 상업적 농작물 재배로 인하여 화학비료와 농약 등 화학물질 사용이 늘어남으로써 수많은 고유종자가 파괴되고 있다. 고유종자들은 5~7년 주기를 가지고 알맞은 토양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 방식으로 재배되어야 하는데 상업작물 재배로 인하여 이런 주기가 무너지고 토양까지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종자의 소실은 곧 식량의 소실을 의미한다. 이는 가정과 공동체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여성농민들에게 있어서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없고, 자연으로부터 부족한 식량을 채취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생계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을마다 남성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여성들만 남아 농사를 지으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빈번해 졌다. 일부 마을에서는 아이들을 노인들에게 맡기고 부모 모두가 도시로 떠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시발점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전통적인 농업의 보전과 종자보호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이고 특히 도시 빈민 등의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

(가) 종자보호 운동의 발전

태국빈민연합은 풀뿌리 민중운동단체로 크게 4개의 민중연합체, 즉 농민, 어민, 도시빈민,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7개의 네트워크 조직이 참가하고 있는데, 댐건설 반대 네트워크(Dam Network), 대안농업네트워크(Alternative Agriculture Network, 이하 AAN), 남부어민연합, 숲에서 사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토지 네트워크, 슬럼가 네트워크(Thailand's National Slum Network), 작업장에서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네트워크가 그것이다.

태국은 태국빈민연합 소속인 ANN을 중심으로 지난 5년 간 고유종자 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다양한 지역, 문화, 민족 출신의 농민들과 함께 지역 포럼을 열어 지역 고유의 종자를 교환하는 등의 각종 사업을 통해서 종자를 모으는 활동을 해 왔다.

고유의 종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소비문화이다. 많은 고유종자들이 시장판매보다는 자급자족용으로 재배되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은 종교적 믿음, 의식, 문화적 이유 등으로 인해 자신들이 선호하는 대로 종자를 선택한다. 둘째는 생태적 조건들이다. 국가에 의해 장려되는 종자들이 모든 생태적 환경에 걸맞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시장주의적 종자들이 수도작 경작방식을 따르는 반면, 여러 고유종자들은 지역적 생태 환경에 맞게 건조한 지역에서도 경작이 가능하다. 마지막 이유는 전통 유산의 보존이다. 농민들은 종자가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유산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고유종자 재배를 계속함으로써 이 소중한 유산을 지켜내고 후세에 물려주려 애쓰고 있다.

다행히도 시장중심의 종자들이 평야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반면, 고지대는 아직 이러한 정책의 주요 목표지점이 아니다. 따라서 고지대 농민들은 전통 경작방식을 통해 고유종자를 보호해 왔다. 태국 북부 소수민족인 캐런족 공동체에서는 쌀 및 기타 곡물, 채소, 향초 등의 고유종자를 돌려짓기 방식을 통해 보존해 왔다. 그 결과 1년에 무려 30여 종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종자 및 재배방법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특히 캐런 족의 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씨를 채취하고 선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채취된 종자들은 부엌에 보관하여 장작 연기가 종자들을 습기, 병충해로부터 보호하도록 한다. 각 농가가 종교적 믿음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씩 다른 종자들을 소유하며, 그에 따른 보관, 경작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종종 공동체 주민들끼리 종자를 빌리거나 교환하며, 친지나 친구들 또는 멀리 떨어진 다른 소수민족 공동체로부터 새로운 종자를 도입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캐런족 공동체들은 각각 100여 종이 넘는 종자를 보유하고 있으

며, 일부 공동체들은 300종이 넘는 종자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 소수민족 공동체들이 이렇게 종자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었던 데는 돌려짓기 방식의 도움이 컸다.

그러나 정부의 상업작물 위주의 농업정책으로 인해 경작지 면적이 줄어들고, 삼림 접근이 제한되었고, 산림벌채의 원인이라는 미명하에 농민들이 돌려짓기 방식을 쓰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돌려짓기의 주기가 기존의 7~10년에서 2~3년으로 단축되면서 심각한 잡초문제가 생겨났고, 제초 작업에 필요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화학적 제초제를 쓰는 결과를 낳았다. 많은 고지대 농민들이 돌려짓기를 포기하고 옥수수, 생강, 땅콩과 같은 환금작물 재배를 시작했으며, 초국적 기업의 지배를 받는 보이지 않는 시장에 휘둘리고 있다. 정부 기관의 고지대 개발 계획이나 삼림보존 프로젝트, 각종 기업들의 후원이 이러한 상업적 농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태국 정부의 삼림보호정책으로 인해 고지대 농민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대대로 이어진 경작지가 삼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북부의 소수민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농민들이 생계의 터전으로부터 쫓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AAN은 북부농민연대(Nrthern Farmers' Network, 이하 NFN)와 함께 고지대에서의 종자보호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NFN은 태국빈민연합의 회원단체이기도 한데 정부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북부 농민들과 소수민족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NFN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정부정책에 대항하면서 돌려짓기 방식을 통해 고유종자를 보호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종자를 저장하고 분류하여 자료로 만들고 이를 다시 심어서 종자를 불리는 방식으로 지역 종자를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통해 태국과 미국 간의 FTA에서 의제가 될지도 모르는 벼 종자의 특허문제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역차원과 국가차원에서 종자품평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종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종자품평회가 잇산지역종자품평회(Local Isaan Seed Fair, Ku Kasigha Area)이다. 농민들은 이같은 품평회에서 종자를 분석하고 종자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이 품평회에서 종자를 교환하고 종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고유의 종자 보전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종자보호는 식량안보 뿐만 아니라 식량주권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는 생존권과도 직결된 문제로서, 종자의 소실은 곧 스스로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힘의 소실을 의미한다. 농민은 전통적 경작을 계속할 권리, 그리고 경작지와 자연자원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농민, 여성, 소수민족이 생존을 위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더이상 초국적 기업에 지배받는 정부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없다. 우리의 종자와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세계적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영세농민들의 정치적 힘을 키워야 한다.”⁶⁾

(나) 쌀 종자지키기 관련 활동

현재 태국 종자은행에는 약 2만여종의 쌀 종자가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농가에는 그 몇 배의 고유종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태국정부의 시장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종자가 소실되기도 하였다. 내수, 수출 시장에서 모두 자스민 쌀과 같은 장립종 쌀류가 장려되자 여러 종류의 중·단립종 종자들은 버려지게 되었다. 소비자들의 입맛도 시장의 영향으로 변화하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경작 패턴도 변형되었다.

지금까지 AAN은 시장주의보다는 자급자족을 우선하는 지속가능한 농업구조의 형식으로 약 130 여종의 쌀 종자를 수집했다. 먼저 종자들을 정련하고 전통적 방식으로 재 생산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일부 지역 농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특성을 가진 쌀 종자를 창출하기 위해 실험적 노력을 기울였다. 여성 농민들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태국 토종 쌀은 다양한 종을 보유했다. 태국 쌀은 이전에 수만, 수십만 가지의 종이 있었지만 지금은 태국 법에 의해 보호되는 쌀 품종이 29개에 불과하다. 2001년 ANN 등의 농민단체는 빈민포럼(Forum of the Poor) 행사를 통해 ‘식물종 다양성보호에 관한 법(Plant Protection Act)’을 통해 식물 종에 대한 권리가 민중들에 속한다는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주장을 하였고 수상으로부터 그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 즉, 이 법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 총 21명 가운데 정부기관을 제외한 7명의 위원이 모두 AAN과 태국 전통의약과 유전자원을 위한 실무그룹(Thai Working Group on Traditional Medicine & Genetic Resources) 소속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태국과 미국간 FTA 협상안에는 태국이 미국에 생명특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식물보호에 관한 태국의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태국 식물보호법은 태국의 쌀, 식물, 동물의 다양성이 태국에 속해 있으므로 아무도 이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만약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역 공동체

6) 2007년 9월 국제종자포럼 발제문에서 발췌.

그리고, 태국정부에 알려야 하며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FTA가 체결되면 이 법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왜냐하면 FTA는 생물종에 대한 권리를 태국 민중이 아닌 미국이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국의 NGO들은 누가 소유자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투쟁을 진행 중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스민쌀에 대한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식량농업과학연구소 크리스 데렌(Chris Deren)은 태국의 자스민쌀 종자를 필리핀의 국제쌀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에서 1995년 제공받았⁷⁾ 일찍 자라고 키는 작은 벼로 종자를 개량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자스민쌀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개량한 것이다. 이 연구는 미국 농무성의 자금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는데 이는 태국의 자스민쌀에 대하여 두 가지 위협이 되었다. 첫째는 금전적인 문제로 미국에 적합한 종자로 개량한 후 미국 내에서의 가격이 태국이 미국에 수출하던 가격에 비해 약 44% 싸다는 것이다. 이는 태국정부에서 수출작물을 지원하던 정책에 큰 타격을 주는 것임과 동시에 농민들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두 번째 위협에 있다. 미국은 미국산 개량종 쌀에 태국 자스민쌀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스민쌀이라는 종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스민향 만이 아니라 그 어떤 향이라도 향을 내는 쌀은 모두 자스민쌀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2001년 태국 정부는 이 자스민쌀이라는 이름에 대해 미국 농무성에 항의하고 정식으로 청원서를 제출했다.

2002년 미국정부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이 청원을 기각했다. 첫째, 미국연방통상위원회(US 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는 생산자가 아니라 미국 소비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둘째, 이 사건은 뚜렷한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셋째, 미국 농무성에서는 자스민이라는 이름을 향을 내는 쌀의 포괄적인(generic) 이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이유로 FTC는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처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Educational Network for Global and Grassroots Exchange(이하 ENGAGE)였다. ENGAGE는 소비자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이 문제를 알려나갔으며 이는 자스민쌀 캠페인(Jasmine Rice Campaign)이라는 전국적인 운동이 되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다섯 가지이다.

7) 이는 데렌 자신의 주장이다.

첫째, 태국의 농민과 태국의 각 단체들의 대표자를 미국에 파견하여 미국 소비자들에게 자스민쌀에 대해 알리고 미국의 NGO 등 관심있는 단체들과 자스민쌀 캠페인에 대해 협의한다.

둘째, 미국의 소비자와 지역 조직들에게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알림으로써 관심을 증진한다.

① 그들의 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그 권리를 FTC가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② 태국에서 재배되는 자스민쌀과 태국 사람들에게 자스민쌀이 가지는 중요성 및 부채와 대외의존적인 농업관행으로 인해 태국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③ 농민들의 삶에 대한 GMO의 위험성

④ 거대 농화학기업들이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빈곤문제에 관한 사실

⑤ WTO-TRIPs 등 불공정 거래로 인하여 태국 농민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농민들, 특히 소농들이 자신들의 종자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

⑥ 미국 농무성이 인정한 자스민쌀은 태국의 자스민쌀이 아니며 이는 지리적 표시, 지역의 유산 및 태국 사회에서의 자스민쌀의 의미 등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

셋째, FTC에게 자스민을 포괄적인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태국과 미국간에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공정거래를 위한 네트워크를 창설한다.

다섯째, 미국의 지역 조직과 태국의 지역조직, 국제조직 등이 공정거래와 세계적인 식량안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제 이 운동은 AAN을 중심으로 UN에서의 연설까지 이끌어내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스민 쌀의 소유권은 태국에게 있다. 하지만 미국은 그들이 자스민 쌀을 가져가서 연구 후에 약간 변형을 하고 이름을 바꾼 다음, 새로운 종에 대한 특허권이 미국에 있고, 태국은 이를 돈을 내고 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은 종자를 사기를 원하지 않는다. 종자는 농민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자스민 쌀의 권리를 이름을 바꿔 팔려고 하기도 했고, 이제 이를 위해 FTA를 이용하고 있다. 이것이 지역의 쌀 다양성에 대한 투쟁이 일어난 이유이다. 미국은 자스민 쌀이 세계시장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소유하려고 한다. 올해 태국은 3백억 바트의 자스민 쌀을 수출했다.(1달러=45바

트) 미국은 이 시장의 가치를 알고 있다. 전 세계 소비자를 생각했을 때 수익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태국은 유전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스민 쌀만이 아니라 태국의 다양한 토착 식물을 미국의 제약회사, 종자회사도 노리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반대하는 투쟁에 농민들이 나서고 있다.”⁸⁾

(8) 인도네시아

2007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하여 교배종자를 1000 톤 이상 수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쌀 생산량을 2백만 톤 가량 늘리기 위해 여러 계획을 세웠다. 그 중 하나가 교배종 쌀 종자를 수입하여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에서 농업관련 활동을 해온 농민단체인 인도네시아 농민연대(Federation of Indonesian Peasants Union, 이하 FSPD)는 종자수입을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한 바 있다.

첫째, 생산성 향상이 단지 개량종을 통한 생산량 증대에 있는 것은 아니다. 개량종을 통한 다수확은 해결책이 아니며 농업개혁을 통해 농지를 확보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개혁은 농지분배 등의 농지개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농업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종자이다. 종자산업을 통하여 보급되는 종자는 별 효과가 없다. 오히려 지역에서 농민 스스로 재배해 온 종자가 우수하다. 인도네시아에는 수 천 종의 종자가 있고 언제든 재배 가능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만약 수입종자까지 들어온다면 지역 차원에서 보유하고 재배해 온 종자들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며 이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아니다.

둘째, 농업생산방식을 지금과 같은 일반 산업적 모델에 맞추어서는 안된다. 특히 개량종 종자를 쓰도록 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엄청난 비용 부담이 될 것이다. FSPD의 조사에 따르면 종자와 그에 맞는 화학비료, 농약을 구입하는데 농업자본의 45.4%가 쓰이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듀폰, 몬산토, 신젠타, 바이엘, 리마그레인, 다우, 아벤티스 등의 대기업들이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들이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인도네시아 종자 시장 또한 잠식하고 있다.

기업들은 교배종자의 높은 생산율을 미끼로 농민들을 유혹하여 거대한 이윤창출을 꾀한다. 교배종자가 더 큰 이익을 보장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8) 2007년 9월 국제종자포럼 발제문에서 발췌.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심지어 농림부 장관이나 현장 교육간부들조차 기업의 영업사원 마냥 앞장서 교배종자와 그 부가기술을 사용하도록 부추기기까지 한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볼 때, 농업은 역사적으로 큰 자본투자를 요하지 않았다. 종자를 비롯한 농업자원이 지역적으로 통제되면서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가족단위의 농업을 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인도네시아의 노동력의 44%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자원의 일부인 종자가 농민들에 의해 소유되고 관리·통제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농민들에게 있어서 종자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종자가 대규모 농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농민 착취의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은 최우선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예산을 보면 경제 관련 다른 분야의 예산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주권과 생태적 종다양성을 위협하고, 농민의 기업의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대대손손 지켜온 고유의 지혜와 가치를 말소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정책은 WTO 체제에 맞게 변했으며,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TRIPs와 UPOV에 대한 정부의 법 정책이다. 이에 따라 식물종보호법(Law on Plant Variety Protection, No. 29 of 2000)을 제정하였고 특허법(Patent Law, No.6 of 1989)을 개정하여 생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의 농업관행이다.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종자를 사서 쓰기 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자를 계속 쓰는 것을 관행으로 삼아 왔다. 그리고 이 종자들을 마을 간에 교환하고 보전해 왔다. 이런 관행 속에서 보전된 대표적인 종자가 자바지역의 유명한 쌀 종자인 Rojolele이다. 이 종자는 토종과 개량된 재래종 두 종류가 있다. 농민들은 토종종자와 함께 그것이 잘 재배 되도록 정보를 교환하면서 고유의 종자를 만들어 왔다. 인도네시아 농민들은 여전히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종자를 교환하고 저장한다.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방식은 정부로부터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농민들은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항하고 있다. 농민들 스스로 발전시킨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항수단은 과거부터 전해져 온 종자를 계속 사용하고 교환하면서 지키는 활동이다.

이런 종자교환 활동은 1980년대 중반 유기농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2003년 FSPI가 대대적으로 회원들 간의 종자교환을 제안하면서 종자교환의 두 번째 흐름이 시작되었

다. 그러나 이런 종자교환 전통은 서부 자바지방에서는 소농을 중심으로 수 십 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으며 중부 자바의 요그야카르타주와 동부 자바지방 일부에서도 간간히 계속 되어왔다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농약사용과 생물해적질 반대운동을 하는 NGO인 BioTani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그리고 이들은 이 전통을 통해 지켜온 종자에 대해 어떤 지적재산권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종자를 더 널리 알려나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상업화한 북부 자바지방에서는 이런 전통은 사라졌으며 종자를 종묘상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자는 농촌에서 삶의 중심이다. 종자를 지배하면 그 종자를 둘러싼 많은 활동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그것이 바로 종자주권이다. 종자생산이 그것이 뿌려져야 할 토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농촌에서 종자를 일구는 삶으로부터도 멀어진다. 그만큼 위험이 증가한다는 말이다. 종자생산은 농지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적절하다는 것은 바로 생태적이고 문화적이고 영양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증명된 바 없는 기술을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자는 위험하다. 따라서 농민들은 GMO 종자에 대하여 그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녹색혁명 이후 많은 농민들이 종자를 사서 재배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소농들은 그들의 종자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농지나 농촌지역사회에서 보전해오고 있다. 농가 개개인이나 지역사회에서 종자를 보전하는 것은 생태적, 경제적 안보를 이루는 확실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GMO로부터 농업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의식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농민들에게 종자교환과 종자에 관한 전통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전통을 지키는 것이며 유전자원을 보전하는 길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가) FSPI의 활동

이러한 종자보전 활동들이 조직적으로 가능한 것이 바로 FSPI의 활동에 의해서이다. FSPI의 종자관련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다.

첫째, 농민의 수요에 근거한 우수 종자를 개발하고 농민을 종자에 대한 소비자 또는 최종 수요자가 아니라 주체로서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주(State)는 지역차원에서 종자를 분배하고 관리하는 주립기업이나 종자협동조합에 의하여 자신만의 우수종자를 생산해야 하고 대기업에 종자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

셋째, 최근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종자를 보유하지 못한다면 주(State)는 수입기간이 효력을 발휘하는데 시간 제한을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농업발전을 위하여 종자공급 주권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종자수입은 3~5년간만 유효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종자주권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 지역 차원에서 지역의 전통지식, 문화 등에 기초한 종자은행을 세우고 종자교환을 하도록 한다.

다섯째, 농업부문은 발전에서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비옥한 농지, 충분한 물 자원, 생물 다양성을 통하여 농업을 경제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주와 국민은 농업 안팎으로 농업부문을 관리하는 주권을 이룩하여야 한다. 농업사회의 최종산물인 종자는 농민이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

(나) Yayasan IDEP의 활동

야야산 인도네시아 교육 및 유기농업발전재단(Indonesian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Permaculture Foundation, 이하 야야산 IDEP)은 1999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식량생산과 자원 관리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기농업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는 특히 전국적인 유기농업관련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 사업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종자보전과 종자은행관련 사업이다.

야야산 IDEP는 초국적 생명공학기업에 의해 GMO가 널리 재배되고 이 종자가 인도네시아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에 야야산 IDEP는 2003년 18개월 프로젝트로 GMO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이를 알리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야야산 IDEP는 이러한 GMO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종자생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발리의 우붓지방에서의 소규모 종묘장(seedling nurseries)의 성공을 발판으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종자보전기술을 다른 지역에까지 널리 알려나갔다. 종자보전의 순환체계인 재배, 수확, 정련, 건조, 저장 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책자를 만들어 홍보하였다. 지역의 여성농민들이 비싼 개량종자를 사서 재배하던 관행을 버리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지속가능한 종자보급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책자를 통해 종자보전의 중요성을 알려나갔다.

최근에는 간단하면서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종자교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여성농민을 중심으로 채소, 과일, 허브, 및 약재식물 등을 개별 가정이 재배하고 이를 종자교환소 등을 통해 교환하는 체계를 구축중에 있다. 그리고 이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종자은행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다) 종자보전 활동 사례 - 쿠로마을⁹⁾

종자를 비롯한 농업자원이 지역적으로 관리되면서 농민들 스스로 농업을 꾸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쿠로 마을이다. 이곳은 FSPI의 회원들로 구성된 마을로서, 농민 스스로가 농업과 삶을 지켜낸 곳이다.

팜팡간 지역에 위치한 쿠로 마을은 수마트라 남부 도시인 팔렘방에서 120Km, 카유아궁에서 80Km 떨어진 외딴 마을이다. 보통은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지만 수위가 높아지는 우기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쿠로 마을의 구성원은 주로 농민과 어부들이다. 논 농사가 주를 이루고, 농민들은 IR 64, IR 42, Ciherang과 같은 교배종자를 사용한다. 이러한 농업구조는 수하르토 정권 시절 녹색혁명과 함께 도입되었다. 녹색혁명으로 인해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삼게 되면서, 그 전에 널리 소비되던 밀, 고구마, 옥수수 등의 작물 재배가 줄고 쌀만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농민들은 무려 1만 종의 고유 종자를 잃게 되었다.

이렇게 교배종자가 널리 사용되는 현실 속에서, FSPI의 일부인 남부 수마트라 농민회(South Sumatra Peasant Union, 이하 SPSS) 멜라티 농민단체의 농민들이 고유종자(Padi Salek, Sawah Kanyut, Padih Puteh, Padi Sibur) 지키기에 힘쓰고 있다. 여러 가지 고유종자들 중 농민들이 가장 널리 쓰는 종이 바로 파디 살렉(padi salek)이다. 파디 살렉이 섭씨 30도를 웃도는 쿠로 마을의 기온에 가장 적합하고, 가뭄과 홍수에 강하기 때문이다. 파디 살렉은 긴 줄기와 무성한 잎이 특징이며, 무성한 잎사귀 덕분에 잡초가 자라지 못해 제초제를 쓸 필요가 없다. 역사적으로 그 원산지나 발명가는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은 파디 살렉이 선대로부터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온 유산이라고 믿는다.

쿠로 마을 농민들은 종자를 지키기 위해 여러 장애를 극복해야 했다. 가장 큰 장애물은

9) 2007년 9월 국제종자포럼 발제문에서 발췌.

바로 대규모 농기업들이었다. 기업들은 현장의 교육간부들을 통해 끊임없이 상품판매의 기회를 노렸고, 교활하게도 자신들의 교배종자가 “최상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배종자와 부가기술 구매를 부추겼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높은 생산율을 약속받고 은연중에 전통적 농업 방식을 버리게 되었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전통적 농업방식을 버리는 것은 곧 공동체적 문화, 민주주의, 비옥한 토양,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멜라티 농민단체의 농민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고유종자와 전통적 농업구조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여러 모임들을 통해 알려나갔다. 또한 고유종자로 농사를 지음으로써 종자지키기에 힘썼다. 매 수확기마다 2~4칸의 종자(4~24kg)를 채취하여 0.75~1.5헥타르의 땅에 뿌렸다. 그럼으로써 종자를 지키고 생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파디 살렉 종자를 사용하면 생산비를 더욱 낮추어서 종자 3칸으로 1헥타르의 논을 경작하는데 약 6만 루피아 정도가 든다. 교배종을 써서 드는 48만 루피아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비용이다.

종자를 지키기 위해서 다음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1. 종자로 쓰일 벼는 아나이-아나이(전통 낫)와 같이 특수한 도구로 수확한다. 그래야 종자가 다치지 않는다.
2. 벼는 밭로 털어 분리시킨다.
3. 분리된 낱알들은 하루동안 햇볕에 말린다.
4. 속이 빈 낱알들은 바람에 날려 보낸다.
5. 낱알들을 자루나 상자에 넣어 최고 6개월 동안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실질적 농업 구조는 여성이 농민임과 동시에 곧 어머니인 가족 농업 구조와 분리될 수 없다. 여성농민의 역할은 매우 복잡하여, 경작지를 일구는 것부터 작물을 수확하는 데까지 농장의 모든 활동에 여성농민들이 참여한다. 그중 주요한 활동 중 하나가 종자를 준비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여성농민들은 종자를 모으고, 선택/관리하고, 심는 모든 종자관리의 책임을 맡아왔다. 이 역할은 오직 여성농민의 것이었다. 그래서 종자를 지키는 사업에 있어서 여성농민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종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여성들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의 분배는 농경지를 일구는 일이 남성농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결론적으로 종자 지키기는 소위 '최상품'으로 선전되고 있는 기업 교배종에 대한 농민의 의존도를 끊어내고 여성농민의 생산적 역할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의무와도 같은 사업이다.

(9) 필리핀

필리핀은 농업국가로서 국민총생산의 약 21%가 농업부문에서 생겨난다. 그러나 약 70%의 농민이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농업노동력의 73%가 농업노동자이거나 가족노동, 또는 소작농이다. WTO 이후 농촌은 더욱 열악해졌는데 이는 1995년에서 1999년 사이 수입이 540%로 증가한데 큰 원인이 있다.

최근 정부는 관세 장벽 등 자국의 쌀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완화하거나 폐지하면서 지역 쌀 생산자의 생존권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도 위협받고 있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종자 다양성 보호법(공화법 9168)이 2002년 통과되었으나 종자에 대한 농민 권리에 반하는 그 본질로 인해 많은 농민과 비정부기구, 과학자들과 그밖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 법이 생물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식량 보장을 위협한다는 것이 대중의 일치된 의견이다. 또한 이 법이 농업 연구와 혁신을 저지하고 다국적, 초국적 기업의 필리핀 농업 지배를 돕는다는 것 역시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

이 법은 단지 식량 보장과 농업 연구, 국가 농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업화된 종자와 그 기술을 조직하고 상업화하며 대중화시킨다. 또한 많은 이들은 이 법이 기업에 대한 종자 의존성을 심화시킴으로써 소규모 농민들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결국 종자에 대한 권리를 농민들로부터 박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중들은 필리핀 정부가 산업 선진국들의 압박- TRIPs와 ITPGRFA(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도출하기 위하여 식물 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도입하라는 - 에 굴복하여 법을 통과시켰다고 믿고 있다.

소농들이 고투입농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농에 맞는 농업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이미 농민들은 수확량 감소와 토양 손실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에 따라 부채라는 부담까지 안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운동이 1980대 중반부터 일기 시작했다. 지속가능한 농업에서의 주요 관심사는 종자문제이다. 농민들은 생물특허로 인하여 종자에 대한 주권뿐만 아니라 식량주권까지 포기해야 하는 사정에 직면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농민들은 NGO들과 함께 농민이 중심이 되

고 농민에 근거한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농업발전을 위한 농민·과학자 연합(Magsasala at Siyentipiko Para sa Pag-unlad ng Agrikultura, the Farmer-Scientist Partnership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이하 MASIPAG)이다.

MASIPAG는 녹색혁명으로 인한 농업의 몰락에 대항하여 빈농에게 적절한 종자와 그 종자에 관한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대안농업을 추구하는 연구조직이다. 필리핀은 약 2000여 종의 토종쌀 종자를 수집하여 종자개량을 통해 다수확품종을 보급하였는데 이 종자들은 후에 토양이나 환경 등에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MASIPAG는 대안농업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쌀 및 채소 종자를 모아 시험재배를 하였다. 시험재배는 농민들이 직접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기술자와 과학자가 농민들과 함께 연구하였다. 현재 약 500개 이상의 농민단체와 42개의 NGO들이 MASIPAG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MASIPAG의 가장 큰 업적은 종자 권리를 농민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종자의 종 다양성이 농민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839종의 쌀 종자가 있고 그 가운데 93종이 루손 지방에서, 141종이 비자야 지방에서, 127종이 민다나오 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다. 이 종자들은 농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에서 계속 종자교환을 통하여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옥수수, 전통채소의 종자와 가축품종도 보급되고 있다. MASIPAG의 목적은 단순히 종자보급에만 있지는 않다. 종자보급은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를 위하여 개발한 것이며 단작 중심의 농업을 다품종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MASIPAG에서 진행한 이 사업은 살아있는 종자은행(living seed banks)으로 역할을 하며 36개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GMO 재배가 늘어나고 생물에 대한 특허가 증가하여도 필리핀에서는 농민들 스스로 종자를 보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대안농업을 이끌고 있다. 현재 MASIPAG의 활동에 대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MASIPAG에서 발굴해 낸 종자에 대해 정부나 기업이 종자 및 특허관련 법에 따른 품종등록이나 특허를 통해 그 권리를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또다시 종자에 대한 권리가 농민의 손에서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필리핀에서 두드러진 종자 지키기 활동은 MASIPAG 외에 쌀집약화체계(System of Rice Intensification Program, 이하 SRI사업)도 있다. 이 사업은 20여개의 지역에서 30여 개의 농민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631 종의 종자가 수집되어 농민들 사이에서 교환을 통하여 재배되고 있다. 이 종자들은 화학비료나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고

도 충분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종자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0)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동남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서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국토 면적은 176,520km², 21.6%에 해당하는 국토가 경작지이며 이중 2700km²에 해당하는 토지는 관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가 인구는 1400만 명이며 그 가운데 68.5%에 해당하는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작물은 쌀, 고무, 옥수수, 채소, 캐슈 등이며 주요 산업은 관광, 의류, 제분, 어업, 제재업, 고무와 시멘트 산업 등이다.

캄보디아는 1965년에서 1968년 사이에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이 파괴되었다. 농업은 여전히 자연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지만 점차 화학비료 등에 의존하면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빈농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식량안보, 식품안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및 국가적인 농업 지원 등은 미미하다. 최근에 와서야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쌀은 캄보디아에서 핵심적인 작물이다. 농지의 90%가 벼농사를 짓고 있다. 국가 경제 역시 벼농사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다수확벼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 다수확을 위한 체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다가스카르에서 유래한 쌀집약화 체계(System of Rice Intensification, 이하 SRI)이다. 이 SRI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지역 종자를 보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는 다수확품종을 추구하면서도 지역고유의 쌀 종자를 이용한 농업도 허용하고 있다.

쌀과 더불어 중요한 작물은 채소이다. 그러나 현대의 과도한 살충제와 비료의 사용은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레이 벵 주의 농민들이 그 한 예이다. 당시 SRI 시스템을 사용하던 이곳 지역 농민들은 지나친 화학 비료와 살충제의 구입으로 인하여 빚더미에 올라 앉았을 뿐 아니라 이들 화학제품의 과도한 사용이 야기한 환경적, 건강상의 문제까지 더불어 짊어져야 했다.

현대의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종자는 전통적으로 지역 종자에 의존해 왔던 농민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개량종자들은 각종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성질을 발현하는 동시에 인간이 원하는 영양소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농업이 종자의 품종 개량과 공급 문제를 기업에 의존하게 만드는 현실을 낳았다. 이는 지역 종자의 종말을 야기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지역 농민들은 화학 비료와 살충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 비료와 자연의 살충효과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해 왔으

나 새로운 개량 종자는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평생 구입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캄보디아에는 CARDI AQUIP, Golden Seed와 같은 기관들이 종자의 품종 개량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개량 종자가 농민들에게 판매되면서 농민들은 전통적인 지역 종자를 멀리하는 동시에 종자를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자신들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

(가) 종자지키기 관련 활동

지역종자를 지키는 활동은 주로 농민과 자연 연대(Farmer and Nature Net, 이하 FNN)와 캄보디아 농업 발전 연구 센터(Cambodian Center for Study and Development in Agriculture, 이하 CEDAC)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CEDAC은 FNN의 주요 파트너로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기술을 지향하고 농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FNN은 조직의 발전과 FNN의 확장을 통해 소규모 농민들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하며, 농민들의 리더십과 그 역량을 고취시킴으로써 농민 멤버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그 주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1,131개에 달하는 공동체 중심의 농민 단체(Village based Farmer Associations, 이하 VFA)가 전국 1,126 마을, 11개 주에 걸쳐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 회원 수는 30,084 여명이며 (15,792명이 여성) 그 경제적 가치는 397,471 달러에 달한다. 이외의 VFA의 산하 소속 단체들은 330 여개의 여성 단체(단체당 경제규모 48달러)와 257개의 청년농민단체 등이 있다.

FNN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며 활동의 초점은 공동체의 역량발전과 농업 기술 발전에 두고 있다. SRI, 텃밭 가꾸기, 퇴비, 자연 살충제, 양계 시스템, 다목적 농장(multi purpose farming, 이하 MPF) 등이 그 예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우리는 천연 자원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기농 비료의 사용, 지역 가축 농장 경영과 그 종류의 다양화, 작물의 다양성, 공동체 내에서의 쌀 유용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 쌀 보존과 활용의 중요성을 농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다.

또한 친환경 농업 네트워크들과 연대하고 있으며 지역산물의 가치를 대중에게 전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발전을 추진, 확대하기 위하여 토산물 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에도 동참하고 있다. CEDAC는 아시아/태평양 농약행동동맹(Pesticide Action Network

Asia and the Pacific, 이하 PANAP)의 후원 아래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쌀 행동 워크숍 주간을 조직하였다.

1. 식량 주권과 식량 보장에 대한 지역 인식 수준을 높인다.
2. 농민들과 비정부기구 정부 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유전자 조작 종자의 침투를 막는다.
3. 무토지 소유 농민들에 초점을 맞춘다.
4. 친환경적인 농업과 지역 종자 보전에 대한 여성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현대식 농업이 인간과 자연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대부분의 여성 농민들은 종자의 선택과 이용에 있어 적극적인 편이지만, 트레이닝과 워크숍으로 습득된 지식과 그룹 모임의 경험은 VFA멤버 회원들에게 더 풍성한 결실을 보장한다.

그룹 모임과 트레이닝, 농민 연합과 여성 위원회에 기반한 마을 단위를 교환 방문하면서 회원들은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자신들의 그룹을 조직화할 수 있게 된다. 그 주 토론 주제는 아래와 같다.

1. 종자의 구입은 자금이 많이 든다는 것
2. 교배된 새로운 종자의 등장으로 인해 토착종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3. 화학 물질의 독성과 오염의 문제
4. 순수하지 못한 종자가 수확의 질과 양을 감소시키며 풍미를 떨어뜨리는 문제
5.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타지인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제
6. 종자가 기업들의 특허권으로 인해 농민들이 종자를 재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다.

따라서 종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다음의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 중이다.

a. 이유와 목적

- 환경친화적 농법과 여성 문제에 대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
- 지역 종자 보전과 공유
- 개인들의 능력 신장
- 미래 세대 교육
- 토착종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

- 여성의 능력을 신장함으로써 참여를 높이는 문제

b. 과정과 결과

-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기 위한 그룹 모임이 매달 그룹 리더에 의해 조직화되었으며 촉진되었다.

- 각 가정의 발전에 있어 여성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다.

- 여성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여성은 종자 정제에 기여한다. 많은 지역 종자들이 쌀과 채소의 품종에 따라 분류된다.

- 무료 제공, 서로 빌려주기, 공유하기 등 종자 대중화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c. 종자 정제와 선택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참여도: 여성이 종자 정제와 선택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전통적으로도 가족을 보살피는 일과 종자의 선택, 보전의 문제는 여성의 역할,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은 남성의 역할이었다.

d. 미래를 위한 계획

- 경험 공유를 위한 농민 단체들과 여성 그룹 사이의 협력을 강화한다.

- 종자 정제 관련한 좋은 경험들에 대해 서로 배운다.

- 수확량을 높이는 정제된 종자에 대해 연구한다.

- 회원 규모를 확장한다.

- 지역 종자의 장점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 수준을 높인다.

- 미래 세대들을 교육한다.

‘종자가 없는 것은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은 정도로 지역의 종자는 농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사실상 대부분의 농민들이 멀리 내다보는 거시적 시각이 부족하다. 이를 위해 농민 그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여성은 지역 종자 종류를 보호하는 데 그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11)미국

대부분 상업농이 주를 이루는 미국에서는 종자 역시 종자회사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GMO 종자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가채종한 종자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가 정책이나 법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농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에서 비롯된다. 대표적인 단체가 가족농 씨앗협동조합(Family Farmers Seed Cooperative, FFSC)이다. FFSC는 유기농업을 위한 종자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FFSC는 2008년 품질 좋고 자연수분된 유기종자이면서 개인적인 소유를 하지 않고 공공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는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다. 조합원들은 콜로라도, 뉴멕시코, 오레곤, 워싱턴, 노스다코타, 네브라스카 등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며 조만간 캘리포니아와 아이다호에서도 합류할 예정이다. 이들은 식량주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역에서 다양한 곡류와 채소 농사를 통해 자가채종의 기술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종자를 생산하고 있다.

FFSC는 지역적이지 않고 산업화되고 단작화한 농업관행을 생태적이고 다양하며 지역적인 농업관행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들은 이런 농업관행을 위해서 종자 역시 공공에게 그 권리가 주어져야 함을 시급한 과제로 삼아 다음의 두 가지를 종자생산에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첫째, 개인이 아닌 공공이 권리를 가지며, 유기적으로 생산되고 자연수분된 품질 좋은 종자를 생산하고 지속적인 선발을 통해 품종의 질을 유지하도록 한다.

둘째, 이런 종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계통선발과 교차수분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 간다.

여기서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종자기업들이 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때마다 기후변화 등의 환경변화에 적합하게 바뀌어가는 종자들을 선발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수 천 년 동안 농민들이 해왔던 방식이며 오늘날에도 인류를 위해 장기적으로 건강한 먹거리체계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인식한다.

FFSC 외에도 많은 유기농업단체들이 유기농업을 위해 자가채종이 가능한 종자들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들이 생산하는 종자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징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표시들이 있다. 그 표시들은 다음과 같다.

- 'O'는 유기종자(organic seed)를 의미함. 즉, 이 종자는 유기농으로 생산된 부모의 교잡을 통해 얻어진 종자임.

- ‘U’ 는 처리되지 않은(untreated) 종자를 의미함. 즉, 합성농약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GM종자도 아님을 의미함.
- ‘OP’ 는 자연상태에서 수분된(open pollinated) 종자를 의미함. 즉, 교잡종이 아니므로 자체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장하여 다음 년도에도 파종이 가능한 종자를 의미함.
- ‘H’ 는 수 세대 동안 독특한 특징이 유지되어온 종자를 의미함.
- ‘Hybrid seeds’ 는 특정 형질을 얻기 위하여 서로 다른 종을 교차수분하여 얻어진 종자를 의미함.
- ‘Bio-dynamic’ 은 지역 환경과의 생태학적 균형을 위한 수단을 통해 현지 내에서 생산된 종자를 의미함.

3. 구례 채종포 보고서

가. 채종포 운영 장소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오미마을 운조루 일대(1000평)

나. 토종종자 목록 및 특성

품종명	작물명	작물특성
콩류	서리태	
	쥐눈이콩	
	수박태	
	오리알태	
	검정콩	
	진지리콩	
	선비잡이콩	
	밤콩	
	아주까리 밤콩	
	한아가리콩	
	푸른독새기콩	
	오가피콩	
까치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까치콩은 따로 울타리에 올려 심어야 함 미처 생각하지 않고 심었다 후에 다른 품종을 위해 억지로 다 걷어내어 버림 	

품종명	작물명	작물특성
팔	이팔	• 5월초순에 심었음: 좀 일찍 심고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적팔을 제외하고 다른 팔들은 물에 약한 듯함. 긴 여름 장마에 다 녹아내림: 씨앗 만큼만 수확
	재팔	
	적팔	
	가래팔	
	흰팔	• 구례에서 씨앗을 얻음: 김정애 고구마 밭 주위에 심었더니 자신이 살기 위해서인지 덩굴을 만들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발견함
녹두	녹두	• 구례 씨앗: 50년 이상 (장마가 저도 꼬투리가 썩지 않음)
돈부	흰돈부	
	각시돈부	
	어금니돈부	
강낭콩	올콩	• 6월에 파종했음(두벌 강낭콩으로 알고)두종류: 늦가을까지 익지 않아 애를 먹음
	덩굴강낭콩	
	얇은뱅이 강낭콩	• 3가지 색으로 나누어짐: 마늘 밭과 양파밭 주위에 심음: 이른봄파종(비에 약함:꼬투리째 썩어나기도 함) 조금이라도 늦게 수확하면 썩이 난 강낭콩을 먹을 수밖에 없음
완두	순천 보리밭콩 완두	• 보리밭 주위에 파종: 11월 중순이후 파종, 6월초순부터 풋완두 수확 • 남부지방만 가능 (씨앗을 받기 위한 목적이어서 늦게 까지 남겨둘 수밖에 없었음: 다른 곳은 콩을 심기 위해 경운을 했지만)
	완두	• 씨드림에서 분양: 11월 중순이후 파종: • 보랏빛 꽃이 핼: 만생종(6월중순이후 익기 시작함)
	주먹찰 옥수수	
	차조	• 위밀으로는 씨앗만큼만 수확함
	붉은기장	
	흰수수	
	몽탁수수	
	더덕	
	목화	• 목화도 물에 약함: 배수가 잘되는 땅에 심기를 권함
	메밀	• 3번에 나누어 심음

다. 주요 영농일지

- 2011년 2월 : 10년이상 유기적인 벼농사를 해온 논을 임대함
3월 10일 : 주위 포크레인 작업(물 관리 위해)
4월 5일 : 목화, 수수 포트작업
5월 15일 : 트랙터 경운 작업 및 고랑내기
5월 25일 : 바로 비가 많이 와서 다시 경운과 고랑작업을 함
5월 27일~28일 : 두둑내기및 멀칭 비닐 작업
5월 29일 : 소비자 초청(아이쿱 생협) 토종씨앗 뿌리는날
수수와 목화 포트작업한 것 모종 심기
동부와 일부 콩 심기
주먹찰 옥수수심기
6월 15일 : 나머지 품종 파종
팔종류, 조, 기장, 울무 등
6월 20일 : 1차 제초작업 및 보식
7월 10일 : 2차 제초작업
8월 20일 : 3차 제초
9월 10일 : 주먹찰 옥수수 수확
익어가는 녹두, 돈부 등 수확 시작
9월 30일 : 팥, 돈부 등 수확
10월 24일 : 서리태를 제외하고 모두 수확
11월 15일 : 서리태 수확

라. 토종종자 특징 및 장점

(1) 쥐눈이콩

우리나라가 원산지이고 까맣고 조그만 모양이 쥐눈처럼 생겨서 지어진 이름이다. 가장 약성이 높고 해독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만병을 예방해주고 파괴된 인체조직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약성을 지니고 있어 약콩이라고도 불린다.

(2) 자주감자

적어도 170여년동안 우리 농민들에 의해 재배되어 오면서 한반도의 환경과 기후조건에 잘 적응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병해충과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선발되어 왔다. 또한 개량종보다는 수확이 적지만 풍년과 흉년의 차가 크지 않다. 저장성 또한 뛰어나 지하 움 속에 묻어 두면 다음 해 수확 전까지도 먹을 수 있다.

(3) 완두콩

토종 완두콩은 시중에 판매되는 종자에 비해 노랑고 당도가 뛰어나다. 보관하기도 쉬울 뿐 아니라 큰 모양으로 성기게 여는데 반해 토종 완두콩은 주렁주렁 열려 생산량이 많다.

4. 2012년 전국 토종종자 채종포 현황 및 토종종자 보존 현황

강원	홍천	대파, 오이, 분홍감자, 선비콩, 오리알태, 약콩, 물팔, 장목수수, 차조
	횡성	분홍감자, 자주감자, 옥수수, 조, 기장, 수수
전북	김제	팥, 녹두, 강낭콩, 완두콩
전남	영광	들깨, 녹두, 서리태, 파란콩, 쥐눈이콩, 주먹찰옥수수, 강낭콩, 호피무늬돈부, 검정돈부, 검정이른콩, 비수수, 흰수수, 검정강낭콩, 땅콩, 검정깨
	무안	강낭콩, 넝쿨강낭콩, 검은깨, 고추나물콩, 녹두, 더덕, 도라지, , 동아, 들깨, 메주콩, 무, 부추, 박, 상추, 서리태, 수수, 수세미, 배추, 작두콩, 쥐눈이콩, 푸르데기콩, 참깨, 취나물, 팥, 홍화, 옥수수, 선비잡이콩(등튼콩)
	구례	콩나물콩
경북	의성	밭콩, 메주콩, 옥수수, 땅콩, 양대콩
	상주	누린호박, 수수, 오이, 녹두, 유월양대, 덩불양대, 팥, 속칭, 붉은수수, 고추, 청콩, 대파, 팝콘용 옥수수, 상추, 앓은뱅이 양대
경남	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류 장콩 - 올콩(유월태), 중다리, 늦콩, 봉두콩, 푸른콩 콩나물 콩 - 노란 것, 오리알태, 연두 밥밀콩 - 서리태, 아주까리서리태, 오가피콩, 쥐눈이콩, 검정얼룩콩, 황색얼룩콩, 선비콩, 비둘기콩, 보리콩(완두) 돈부 : 어금니돈부, 검정돈부, 흰돈부, 굽뱅이 돈부 줄콩 - 검은색, 흰색, 얼룩무늬, 보리줄, 붉은색, 자주색, 강낭콩: 제비콩, 키작은 강낭콩-붉은색(두벌콩), 검은색, 얼룩무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수수 : 흑찰, 노랑찰 • 수수 : 찰수수, 메수수 • 조, 사천기장, 팥(붉은팥, 흰팥, 검은팥, 개골팥, 애경팥), 녹두(검은과피, 흰과피), • 깨(흰깨, 검은깨), 들깨(흰들깨, 검은들깨), 땅콩, 해바라기(꽃이 큰 것, 작은 것), 수세미, 홍화, 땅콩, 도라지, 고추(수비초, 봉어초), 청주오이, 파, 겨울초, 부상추, 뽕시금치
	창녕	벼 13가지
	거창	들깨, 땅콩, 수수, 조, 메주콩, 검정콩, 메주콩, 속풀이콩, 들깨, 옥수수, 울콩
	진주	노란콩, 옥수수, 울무, 수수, 쥐눈이콩
제주	구좌읍	60일깨, 각시돈부, 강낭콩, 노가리고추, 단수수, 담배상추, 들깨, 땅콩, 목화, 붉은 강낭콩, 약콩, 어금니돈부, 오가피콩, 조선상추, 중공초, 손가락조 1, 손가락조 2, 손가락조 3
	사라봉	옥수수, 서리태, 도라지, 수세미, 참깨, 늙은호박, 들깨, 목화

5. 토종종자 실태조사

가. 강원 횡성

작물명	품종명	수집원	수집년	특 성	생산자정보
팥	개골팥	횡성	2012		송순예(여), 50세, 25년
수수	몽탁수수	횡성	2012	시어머니전부터	송순예(여), 50세, 25년
마늘	마늘	횡성	2012	맛이 순함. 봄에 심어도 됨.	송순예(여), 50세, 25년
메조	메조	횡성	2012	해마다 심음	송순예(여), 50세, 25년
깨	들깨	횡성	2012		송순예(여), 50세, 25년
콩	쥐눈이콩	횡성	2012		송순예(여), 50세, 25년
콩	적두	횡성	2012	굵고맛 좋음. 20년. 이웃집에서	박선옥(여), 56세, 40년
수수	수수	횡성	2012		차만순(여), 65세, 40년
콩	올서리태	횡성	2012		차만순(여), 65세, 40년
콩	쥐눈이콩	횡성	2012		차만순(여), 65세, 40년

작물명	품종명	수집원	수집년	특 성	생산자정보
콩	서리태	황성	2012		차만순(여), 65세, 40년
돈부	어금니돈부	황성	2012		차만순(여), 65세, 40년
콩	올올타리콩	황성	2012		차만순(여), 65세, 40년
콩	개이빨콩	황성	2012	30년 동네농민에게서.	강명자(여), 76세, 50년
콩	올타리콩	황성	2012	30년 동네 농민에게서. 자주색	강명자(여), 76세, 50년
콩	올타리콩	황성	2012	30년. 동네농민에게서. 밥할때넣으면 단맛이 남.	강명자(여), 76세, 50년
콩	올서리태	황성	2012	작음. 농사 잘되면 조금더큼 음력 9월에 꺾음.	정영순(여), 56세, 30년
감자	돼지감자	황성	2012	10년. 이웃에게서	배영희(남), 64세, 40년
파	돼지파	황성	2012	남쪽에서는안됨(월동내 한성) 4월말에 뜯음. 심을때 싹이 안나옴. 가을에 미늘 심을때 심음.	정양철(여) 57세
팥	왕가래팥	황성	2012	40년	정양철(여) 57세
호박	약호박	황성	2012		정양철(여) 57세
벼	석청벼	황성	2012	밥맛좋음.까낙이 길고 목도열이 덜함. 아까바레보다 키가 적음. 대한보다 수량이 많이남. 철원쪽에서 나눔. 다수확	정양철(여) 57세
메조	노란메조	황성	2012	옛날부터	정양철(여) 57세
수수	찰몽탁수수	황성	2012		정양철(여) 57세
콩	늦서리태	황성	2012		정양철(여) 57세
박	도깨비박	황성	2012	화천쪽. 추운곳에서 남.	정양철(여) 57세
울무	울무	황성	2012	10년. 밭이 질어서 심음.(팔았음)	최순자(여), 76세, 60년
호박	늪은호박	황성	2012	시어머니에게서.	강필분(여), 80세, 50년
깨	참깨	황성	2012	시어머니에게서.	강필분(여), 80세, 50년
고구마	고구마	황성	2012	시어머니에게서.	강필분(여), 80세, 50년
깨	들깨	황성	2012	시어머니에게서.	강필분(여), 80세, 50년

작물명	품종명	수집원	수집년	특 성	생산자정보
콩	올서리태	횡성	2012	30년. 씨앗용. 마을에서.	전태숙(남), 8세, 40년
팥	왕가래팥	횡성	2012	30년	전태숙(남), 58세, 40년
차조	노랑차조	횡성	2012	120~130cm. 창봉서 갖고옴	이미자(여), 72세, 51년
콩	늦서리태	횡성	2012	4-5년. 잘되고 납작하며 길죽함. 작고 타원형. 그냥 먹어도 비리지 않음. 시장에서. 짭짤함. 점점 작아짐. 수확량은 괜찮음. 늦게 익음	이미자(여), 72세, 51년

나. 제주

작물명	품종명	수집지역	수집원	수집년도	수집지 및 특성
제주흑보리	흑보리	대정	고이순		기술원 → 현애자 → 고이순
제주단지무우	단지무우	대정	김정임		기술원 복원된 씨앗을 분양받음
제주토종마늘	마늘	대정	김정임		기술원 복원된 씨앗을 분양받음
제주토종유채	유채	안덕	고애숙		
	목화	대정	김정임		비식용작물중 가장 중요한 자원임
주뿔시금치	시금치	대정	김정임		현진회회원 어머니 → 김옥임 → 김정임
흰참깨	60일개	대정	양명숙		꽃이피고 60일 후 씨앗채취, 수확이 많이 나는게 특징
푸른독새기콩	푸른콩	대정	양명숙		제주 고유의 토종씨앗임
	호박	대정	차정자		단맛이 깊다
제주부추	부추	대정	원정순		가늘고 맛이 달며 해마다 수확 가능함
토종찰옥수수	옥수수	대정	김옥임		전여농에서 씨앗 분양받은 후 3년 연속 파종함
칼콩	콩	대정	김정임		칼모양처럼 생김, 알이 매우 굵고 큼
제비콩	콩	대정	김정임		눈이 선명한 하얀 선이 있음
들깨	들깨	대정	김정임		맛이 고소하고 키가 큼,

작물명	품종명	수집지역	수집원	수집년도	수집지 및 특성
					약간 잎이 두꺼움
완두콩	콩	대정	김정임		전년도 10월 말 파종하여 다음해 5월 수확
수세미	수세미	대정	김정임		여러해살이로 노란 꽃이 피고 박과 증유, 수확이 많이 남
노가리 고추	고추	대정	원정순		전여농에서 분양받은 씨앗, 매우 작고 단단함
적갓	갓	대정	김정임		청갓씨가 섞어져 버림
청갓	갓	대정	김정임		적갓과 씨가 섞어져 버림
들깨		대정	양명숙		
준자리 콩		대정	양명숙		
사탕수수		대정	김정임		키가크고 대는 매우 달아서 식용
어금니 강낭콩	콩	대정	이갑례		대전 -> 제주 11년째 계속 씨앗 수확함
각시 돈부	콩	대정	이갑례		대전 -> 제주 11년째 계속 씨앗 수확함
녕쿨콩	콩	대정	이갑례		대전 -> 제주 11년째 계속 씨앗 수확함
조선상추	상추	대정	이갑례		대전 -> 제주 11년째 계속 씨앗 수확함
아욱	아욱	대정	이갑례		대전 -> 제주 11년째 계속 씨앗 수확함
호박		구좌	윤영미		넓고 감이 뚜렷하다. 4월말 파종, 10월 수확
우도땅콩	땅콩	구좌	윤영미		우도에서 어머니가 계속 농사지음
토종얼룩이콩		한림	고란숙		7월초 파종 10월말 수확, 파랗고 무늬가 있다.
준자리 콩		한림	고란숙		7월초파종 11월초 수확
된장콩		한림	고란숙		7월초 파종 11월초 수확
푸른독새기콩		한림	고란숙		7월초 파종 10월말 수확
조선오이		안덕	김명화		제주도 물외
증공초		안덕	김명화		단맛이 있고 말리니까 껍질이 얇다. 푹고추로 먹기엔 육질이 단단하다
청오이		안덕	김효선		
흰콩	콩	안덕	추미숙		
검은깨		안덕	김미랑		9월말 수확
70일깨		안덕	김미랑		9월말 수확

6. 토종종자 보존에 관한 조례(안) 마련

제주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도의 전통 농작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수산물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포함한다.
2. “현지내 보존”이란 농수산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성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지외 보존”이란 농수산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6. “토종농작물 보유자”란 토종농작물을 간직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7. “토종마을”이란 마을내의 50%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작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자연부락 단위의 농촌마을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① 도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는 토종농작물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토종농작물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는 토종농작물을 현지내 보존 및 현지외 보존하기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제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산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민관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① 민관정책협의회는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토종농작물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마련과 개선
3.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은 (도지사, 농업인 대표,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례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협의회 의안 제출)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토종 농작물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연도 도의 행정구역에서 토종 농작물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토종 농작물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종 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토종 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도내 공공기관의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
 4.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토종 농작물 가공·유통·판매 사업 지원 계획
4. 그 밖에 도민의 토종 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9조(토종 농작물 가공·유통·판매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사회적경제기업이 토종 농작물을 가공·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 지원)

1.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마을 등 토종농작물을 집단으로 재배 또는 보존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보유자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토종농작물 생산실비 수준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토종농작물 보유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토종재배계획 제출) 농업인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파종 5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소득보전 직접지불 신청) ① 농업인은 제6조의 영농계획에 따른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산지가격이 도지사가 별도 지정한 기관의 최근 2년간 평균가격 미만일 때에는 산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이하 “직접지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 신청은 도지사가 2년간 평균가격을 공고한 후 30일 이내에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제13조(직접지불 범위) ① 농업인이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1,500제곱미터 이하를 재배한 때에 한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차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접지불할 수 있다.

② 직접지불 횟수는 연 1회로 한다.

제14조(직접지불 대상결정) ① 제7조에 따라 직접지불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매년 직접지불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도 공고 제2012-00호

제주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제주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주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월 일

제 주 도 지 사

1. 자치 법규명 : 제주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정안

2. 제안 이유

토종 농업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로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육성과 토종의 보전을 통한 자원의 다양성 확보, 식품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 보유자 지정

- 토종농작물로 보존·육성할 품종은 매년 토종농작물 보유자 신청을 받아서 지정함

○ 우선 지원지역

- 각 시·군에 1개소 이상의 토종마을을 지정 육성하여 토종종자 보유자를 지정하고, 품종 생산에 대한 실비를 직접지불함

○ 소득보전 신청

- 토종농산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산지가격과 최근 2년간 평균가격은 해당지역의 농업협동조합 수매가격 또는 통계청 조사가격 등 공공기관이 조사 발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도지사가 공고

- 산지가격과 평균가격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된 품종의 최상품 1개월간의 평균거래가격을 소득보전 기준
- 재배 농산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공공기관이 조사한 평균생산량을 적용

- 토종농산물 종자의 공급
- 토종농산물로 지정된 품종의 종자를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도에 신청

IV. 기대효과

1. 토종종자 실태조사와 토종종자 채종포를 통해 자원확보와 토종종자를 보급함

2. 토종종자와 함께 토종종자 농사를 통해 얻어진 농사기술 및 작물 특성을 전국으로 전파해 토종종자 증식에 많은 도움이 됨

3. 전국으로 나뉜 토종종자로 인해 토종종자 확산에 기여를 함

4.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토종종자 보존에 대한 사례를 전파하고 우리나라 보존을 위한 '토종종자 보존에 관한 조례(안)' 을 만들었으며 곧 제주에서 조례제정이 될 예정임

5.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토종종자를 심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었으며 다양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곧 우리나라 보급소 모델을 만들 예정이며 더욱 토종씨앗을 보존하고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됨

참고문헌